

2) 아브라함은 칼을 아들의 목이나 명치에 들이대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나아갔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미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가시적인 미래만을 현실로 여기니까요. 그걸 포기하면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요. 속된 표현으로 가난한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마 10:28) 건성으로 대하면서 사니까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대상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자기를 부정하는 순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하시나요? 자기가 부정당할까 걱정이 태산 같나요?

3) 본문은 마지막 단락에서 ‘여호와 이레’를 거론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생존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와 인류의 미래에 관해서 모두 생존의 불안을 경험합니다. 모든 행복한 조건을 갖춰도 그 불안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 불안한 심리에서 온갖 불행한 일들이 파생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21세기 현대인들조차 생존의 불안에, 또는 허무에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아는 생존 조건에만 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무리 넘어서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칼을 들고 광신자처럼 설치는 아브라함을 천사가 뜯어말리듯이 우리 영혼을 각성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붙들어줘야만 이미 준비된 숫양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4) 우리의 일상에서 숫양이 무엇인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숨도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존심이나 허영을 자극하는 그 이외의 것들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으나 교회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면모를 다 갖추었습니다.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은 칼과 불이 가리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밀착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준비시켜주시는지를 실감합니다. 그런 순간의 절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즉 아무도 피하지 못할 죽음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예수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광기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인신 제사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7월9일
성령강림 후 6주
세계 교회력 「가」해 33주



노랑 채송화다. 그늘진 잡풀 사이에서 힘들게 꽃을 피웠다. 작년 초겨울에 마당의 흙을 이곳저곳으로 퍼 나르는 과정에서 씨가 묻어갔나 보다. 벌레 먹은 흔적도 확인하다. 생명의 힘은 처연하면서 강력하다. (2023년 7월6일 오전에 찍은 사진)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일상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한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쁨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겠습니다.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 3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온 세계를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종말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삶의 근거이고 목표이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며 매혹적으로 보여도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부분적으로만 참되고 부분적으로만 의로울 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변함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능력을 보이시고, 무(無)로서 유(有)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를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망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기쁨과 자유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8월 첫 주(6일)에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 지난주일(7월 2일) 헌금: 660,000원

- 주일헌금 220,000원, 선교헌금 100,000원, 통장헌금 34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7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7월 16일	박재진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김희란 /아트컬리지5
7월 23일	김동호목사	이기령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시청각실
7월 30일	박재진목사	윤혜정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윤혜정,운영위 /아트컬리지5
8월 6일	정용섭목사	김기범집사/ 김용성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8월 13일	이춘우목사	고중흥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아트컬리지5

지난주일(7월2일) 설교 발췌

제목: 인신 제사의 유혹 (창 22:1~14)

1) 고대 사회에는 여러 형태의 인신 제사 관습이 있었습니다. 인신공양(人身供養)이나 인신공희(人身供犧)라고 불립니다. 신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침으로써 신의 진노를 풀거나 복을 얻으려는 의식입니다. 보통은 전쟁 포로나 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왕의 신하나 귀족의 딸,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나오는 순장 흔적도 사실은 인신 제사입니다. 정치와 노동계에서 벌어지는 분신 사태도 일종의 인신공양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생존에 대한 극심한 불안입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여섯째 주일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일상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십시오. 그곳에서 영혼의 안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 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공연한 걱정과 험잡이 기도 하고, 과도한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여전히 생각과 말에 서툰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숙한 생각과 말로 인해서 이웃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훼손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의와 자비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지난 2천 년 예배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마땅히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떼제찬송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 23장 (주님을 찬양하라) 3회 ... 다 함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가락」 147장 (해지는 저편에 새 하늘에) ... 다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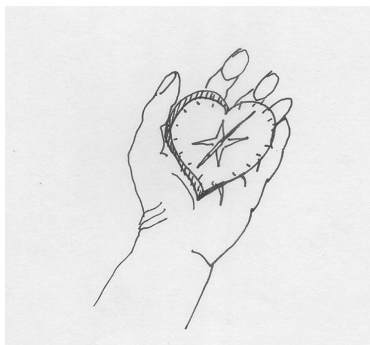
미상

1. 해 - 지는 저편에 새 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그곳 -
 2. 해 - 지는 저편에 구름 한 점도 없고 무서운 것 없으니 -
 3. 해 - 지는 저편에 우리 소망이 있고 두려울 것 없으니 -

고난 질고는 가고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 영광의 날이
 고난 질고는 가고 즐겁고 기쁜 그날 영원한 그 나라로
 어둠 절망은 가고 새롭고 복된 나라 주님의 그 나라가

새벽 영광의 날 밝아 오리라
 우리 주 예수 따라 가리라
 우리 앞에 활짝 펼쳐 지리라

찬란한 - - 아침이 오면 주님은 총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앞 - 에 찬송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드리 세



원편 그림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Rest in God)
 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반더빌트 대학교
 신학대학 도서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말씀 안에서 영혼의 자유와 안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신(마 11: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창세기 24:58~67 ... 이유선 집사

성서교독 시편 145:8~14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은혜로운 우리 주님 오래참고 참으시는 그 사랑이 크십니다
 -인자하신 손길로써 모든 것을 살피시니 깊고 깊은 공활하심 세상만민 아웁니다
 사랑받은 온 생명이 감사노래 부를지라 주의 백성 성도들이 우리 주님 송축하라
 -주모르는 그들에게 주의 나라 보게하고 주의 영광 전파하여 그들 알게 할 것이라
 주님 위엄 주님 나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모든 이들 모든 백성 깨달아서 노래하라
 -주님 나라 주님 통치 영원하고 영원하다 길이길이 찬양하리 주님만이 왕이시네
 주님 말씀 무엇이든 진실한 것 뿐이오며 주님하신 모든 일은 사랑으로 충만하네
 -그누구든 쓰러지면 손내밀어 붙드시고 그누구든 넘어진 자 일으켜서 세우시네

둘째말씀 로마서 7:15~25(전) ... 이유선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11:16~19, 25~30 ... 이유선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주님 말씀 복되어라) ... 다 함께

♩. = 70

주님 말씀 복되어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 사모하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설교 영혼의 안식 ... 이춘우 목사

설교 후 기도 ... 목사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 2절 ... 다 함께